

해체주의적 접근을 통한 미술의상 연구

동서대학교 패션디자인전공 강사, 서윤희*
동서대학교 패션디자인전공 부교수, 노윤선

< 목 차 >

1. 서 론
2. 이론적 배경
 - 2-1. 해체주의
 - 2-2. 미술의상
3. 작품 제작
4. 결 론

< 요 약 >

패션은 재해석되고 수용되고 변화해 나가면서 한 시대를 반영한다. 해체주의 패션은 자유로운 혼합, 대비, 기존관념에의 무시 등을 통한 개혁을 추구하면서 전통·역사·풍토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며 시도하고 있다.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가 표명했듯이 해체 그 본질을 한마디로 무엇이다라고 정의할 수 없으며 이 자체가 또 다른 해체를 낳는 시점이 될 수 있다.

해체주의 패션디자인은 오늘날의 침체된 정신적 물질적 상황을 인식하고 그 문제점을 바탕으로 하여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한다.

1. 서 론

1-1. 연구목적

20세기 후반에 접어들어 기존의 모더니즘 문화현상에 대한 반발로 탈모더니즘 현상이 나타나면서 각 분야는 기성가치가 무너지고 가치관의 혼란을 겪게 되었다. 그에 따라 기존의 개념들을 해체(deconstruction) 시켜야 한다는 인식과 사고로의 전환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해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사고는 1966년 자크 데리다의 해체주의 선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해체주의는 기존의 개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그 체계를 역전, 파괴함을 특징으로 하며 현대 문화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철학·예술사조 속에서 현대 복식으로부터 해체주의적 표현을 찾아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으며 해체주의가 복식에서 어떤 개념으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현대복식에서도 많은 발표가 있었지만 미술의상이라는 표현 양식에 접근해서 해체주의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려 한다.

*교신저자: 서윤희 e-mail: heeya1226@lycos.co.kr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해체주의적 복식 표현 방식 중 상호텍스트성을 중심으로 면봉 등 의외의 소재를 사용하여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미술의상을 제작하며 창조적인 디자인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문헌조사에 의한 이론적 배경과 그것을 토대로 한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의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체주의 형성배경 및 개념을 분석하고 해체주의 디자인의 특성과 복식에 나타난 해체주의 양식의 특성을 고찰한다.

둘째, 미술의상의 개념과 역사적 배경을 통해 해체주의적 접근을 통한 미술의상의 사례를 살펴본다.

셋째, 해체주의 복식의 표현 방법 중 상호텍스트성으로 그 범위를 제한하여 총 7점의 실물작품을 제작한다. 작품 구성은 원피스, 베스트, 재킷, 스커트의 형태를 제작 하였다. 소재는 벨벳, 공단, 면봉, 와이어, 비즈 등을 사용하였고 컬러는 화이트, 블랙, 레드, 옐로, 블루, 그린을 사용한다.

2. 이론적 배경

2-1. 해체주의

(1) 해체주의의 개념

해체주의는 탈구조주의 혹은 구조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등장한 후기 구조주의 사상중 하나¹⁾로 철학에서의 포스트모더니즘과 동의어라 해도 무방하다.²⁾

‘해체’라고 우리말로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 ‘deconstruction’이라는 단어에는 아직 적당한 우리말 번역이 없다. 이 단어에 대한 적당한 우리말 대역어를 찾는다는 것이 가장 반(反) 디컨스트럭션 행위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는 ‘deconstruction’이라는 말이 기존의 언어체계 속에서 생생하게 사용되고 있는 단어의 의미를 고정시키고 자기 동일적 의미만을 갖게 하는 것을 비판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굳이 ‘해체’라는 용어를 통해 deconstruction을 정의한다면 플라톤 이후의 서양 철학사의 모든 이론과 사상 그리고 진리에 대한 학설들을 해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³⁾

(2) 해체주의 디자인의 특성

해체주의 디자인은 모든 법칙을 의심하고 근본부터 해체하여 현대의 비정형적인 세계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다다(Dada)와 같은 모더니즘과 맥을 같이 하며, 기존의 상황을 변형·왜곡하여 인용한다는 점에서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유희’의 개념과도 유사성을 지닌다.⁴⁾ 다만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칭적이고 관습적인 디자인과 그것이 제시하는 인지 가능한 세계도 거부하며, 동시에 환원적인 기능적 형태도 거부하는 것이다. 해체주의 디자인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미 러시아 구성주의(Constructivism)를 통해서 예견되고 있었다. 새로운 부활을 알리면서 1970년대 후반부터 등장한 신구성주의적 움직임은, 1982년 파리 라빌레뜨 공원 현상 설계에 신구성주의적 디자인과 해체주의적 이념을 가진 베르나르 츠뭉미(Bernard Tschumi)가 당선됨으로써 세계적 건축 및 디자인 흐름을 1920년대 러시아 구성주의와 자크 데리다의 해체주의적 이념으로 주도하게 된다.⁵⁾

1) 윤호병 외, 「후기구조주의」 (서울 : 고려원), 1992, pp.17~18.

2) 권택영(編), 「포스트모더니즘과 문화」 (서울 : 문예출판사), 1991, p.9.

3) 정용교, 「구성주의와 해체주의 건축의 비교」, 연세대 석사학위 논문, 1991, p.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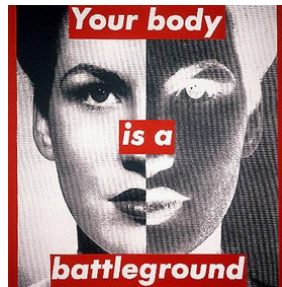
4) 윤도근, “해체주의적 경향의 건축디자인”, 「건축문화」, 1991년 5월, p.42.

데리다에 의해 개념화된 해체주의 철학은 원래 한 디자인의 존재성을 위한 은유적 형태를 취하지 않으며 실제로 해체 자체는 어떤 사물의 은유적 유형도 아니다. 오히려 해체와 디자인 사이의 관계는 특정한 디자인 사고 내에서 발생하며, 원칙적으로는 이는 어떠한 규범적 관습과 그로 인한 재조사를 위한 목표를 강요하는 지배적 개념을 허용하지 않는다.⁶⁾

즉, 아직까지 원래 해체주의의 철학적 이슈와 가시적 스타일 사이의 완전히 납득할 만한 만남이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있는 예는 드물다.

그러나 디자인에서의 해체주의적 움직임은 확산 추세이며, 또한 실제로 건축, 산업 디자인, 시각 디자인, 패션 등에서 보이는 각각의 디자인 스타일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떤 일관된 설명을 부여하기 곤란할 정도로 해체의 개념은 다양하게 적용된다.

데리다의 철학은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의미로서 ‘긍정적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그 의미는 작품들과 해체 사이의 텍스트, 회화, 철학 상호의 움직임이 제공하는 공간 즉, 분리와 조합으로 거듭 생각되어질 수 있는 공간에 자리한다. 즉, 해석의 이중성을 내포하는 것이다.



〈그림 1〉 Barbara Kruger,
무제-당신의 몸은 전쟁터



〈그림 2〉 Daniel Libeskind

〈그림 1〉은 바바라 크루거(Barbara Kruger, 1989)의 해체 사진으로서 제작 상 상이한 매체들로부터 잘려지고 당신의 몸은 전쟁터라는 문장과 병치됨으로써 전력(戰力)은 결코 중심화 될 수 없으며 오히려 탈 중심화 되고 분산되는 사회적 규범들을 강요함으로써 발생하는 무감각한 고정관념을 해체시키고 있다. 〈그림 2〉는 고전적인 건물 사이에 신 건물을 나타내어 옛것과 새것, 소멸과 부활 등 문화가 혼합되고 새롭게 발전되어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3) 복식에 나타난 해체주의 양식의 특성

복식에 있어 해체주의라는 용어는 1989년 ‘디테일즈(Details)’잡지에서 빌 커닝햄(Bill Cunningham)에 의해 처음 사용되어졌다. 해체주의 양식은 디자인의 원리를 기본으로 디자인하고 구성하던 기존의 경향을 해체시키고 의복의 형태를 신체의 움직임과 착용자의 개성에 따라 재구성한 양식으로 나타나는데, 주로 레이 가와쿠보, 장 폴 고티에, 이세이 미야케, 후세인 살라얀, 마틴 마지엘라 등의 디자인에 제시되고 있다. 본 절에서는 해체주의의 특성이 복식에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해체주의적 특성을 개념하기 위한 주요 관점으로써 차연, 의미의 불확정성, 상호텍스트성, 탈현상의 4가지로 분류하여 그 특징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차연

① 시간과 공간의 차연

5) M. Collins, 『Towards Post-Modernism』 (London : British Museum Press), 1994, p.120.

6) 김민수, 『모던디자인 비평』, (서울 : 안그라픽스), 1994, p.170.

패션에 적용된 차연은 수평과 수직의 대립이 파괴되고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해체된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그림 3>은 과거-현재-미래 복식을 결합하는 것과 과거 복식을 현대적으로 재조명한 복고풍 양식이라는 두 가지 양식으로 나타난다.



〈그림 3〉 언더웨어,
교학연구사, 2001, p.107.

② 흔적의 차연

차연이 반영된 또 다른 양식은 <그림 4, 5>와 같이 오랜 시간 동안 닳은 듯한 흔적이 의상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흔적의 차연이 있다.



〈그림 4〉 Korea Vogue,
2003년 2월호



〈그림 5〉 Italy Vogue,
2003년 1월호

2) 의미의 불확정성

복식에서 의미의 불확정성은 착용자에 따라 착장 방법을 달리하는 불확정적 형태 혹은 열린 형태로 나타난다. 열린 형태는 무형식의 표현기법으로 특별한 형태나 형식을 미리 규정하지 않고 착용자에 의해 우연히 완성되는 미완성 상태로 나타난다.

복식에서는 기호화된 추상적 형상에 따라 미래에 새롭게 재해석되는 기호화의 불확정성과 입는 사람의 착장방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착장방식의 불확정성으로 나누었다.

① 기호화의 불확정성

기호화의 불확정성은 낙서나 글자, 기호화한 추상 형태의 패션 도입으로 기존 미적 체계의 파괴와 미래에 재해석되는 의미의 불확정성을 제시하며 해석의 관점이 감상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② 착장 방식의 불확정성

매기, 두르기, 걸치기의 방법으로 여러 겹의 의복을 레이어링시키고 착용자의 방법에 따라 불확정성의 원리를 띄게 된다. 이와 같이 착장 방식의 불확정성은 착용자의 착장 방식에 따라 미래에 새로운 형태의 복식으로 나타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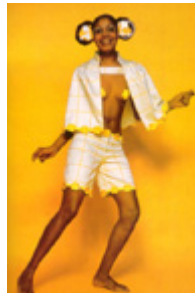
(3) 상호텍스트성

① 성(gender)의 상호텍스트성

해체주의 페미니스트들은 남녀 이분법을 해체함으로써 남, 여의 성차를 거부하고, 성이 사회학적으로 구축되고 역사적으로 변화한다는 사실을 주시하였으며, 이것이 패션에서는 앤드로지너스(androgyne) 룩으로 표현된다.⁷⁾ 앤드로지너스 룩은 여성복식에 남성복식의 특징을 자유로운 감성으로 <그림 6, 7, 8>은 크로스 오버시켜 성차가 없는 의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오늘날 일부 디자이너들은 남성과 여성의 개별적 이미지보다는 인간 자체의 통합적 이미지로써 중성적인 성향을 선호한다.



<그림 6> Kenzo, 세계 유명 패션디자이너 시리즈, 노라노, 2002



<그림 7> Andre Courrèges, 세계 유명 패션디자이너 시리즈, 노라노, 2002



<그림 8> Seredin & Vasiliev, Mode Mode, 2001. 4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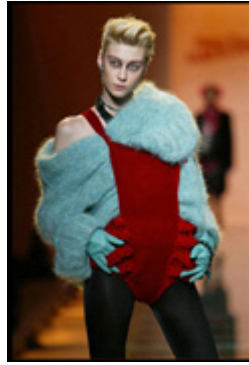
② T.P.O.의 상호텍스트성

복식에서 T.P.O.의 상호텍스트성은 시간성, 공간성, 목적성에 관계없이 복식용도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여, <그림 9>는 속옷의 겉옷화, 스포츠웨어의 일상복화, 낮과 밤의 혼동으로 활동복과 잠옷, 작업복과 일상복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계절에 따른 의복의 규범이 무시되고 있다.

③ 코디네이션의 상호텍스트성

<그림 10, 11>과 같이 코디네이션의 상호텍스트성은 기존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혼합, 대비 등으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7) 손미희, “페미니즘이 현대패션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pp.122~124,



〈그림 9〉
Jeanpaul-Gaultier,
2003/04, F/W



〈그림 10〉 Tokyo
'95 S/S
Collections



〈그림 11〉 Tokyo
'95 S/S
Collections

④ 소재의 상호텍스트성

1960년대 후반 이후의 소재개발과 사고의 변화, 개성의 표현 등으로 소재사용에 있어서 다양해지고, 안감으로 겹옷을 만들거나 겹옷 전체가 시드루(see-through)하여 기존 상식적인 소재의 범위를 넘어서기도 한다. 소재를 결합할 때도 이질적인 소재의 결합, 고급 소재와 값싼 소재의 결합, 하드한 소재와 소프트한 소재의 결합, 원시 소재와 하이테크 소재를 결합⁸⁾하여 극단적인 대비를 표현한다.

4) 탈현상

복식에서 탈 현상은 탈 구성(decomposition)에 의한 무질서한 디자인과 탈 중심으로 나타난다.⁹⁾ 이러한 현상은 기존의 구조가 파괴되어 변형되고 왜곡되고, 과장된 형태로 복식에 표현된다.¹⁰⁾ 예컨대, 복식에서는 겹옷에 가려져 있던 속옷인 브래지어, 팬티, 가터벨트 등이 겹옷 화 되는 것이 대표적인 탈 현상이다.¹¹⁾ 복식에서의 탈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탈 구성, 탈 중심, 불연속, 분열·붕괴의 4가지로 나누었다.

① 탈 구성

탈구성은 통일성, 전체성을 만들어내는 개념을 부정하는 것으로, 기존구성방식의 파괴로 기하학적 형태의 역설적 구성을 취하며 형태의 왜곡과 과장을 나타낸다.

② 탈 중심

복식의 탈 중심을 나타내는 특성은 앞 중심이 기울어지고, 밑단이 여러 각도로 구성되고, 다아트, 옆솔기, 지퍼, 단추 등 모든 것이 중력에 대항한 기울어진 형태를 이루어 수직·수평선을 탈피한 형태이다.

③ 불연속

불연속은 좌·우 혹은 상·하가 일치하지 않는 부조화로 비대칭을 제시한다. 이러한 특성을 다룬 디자이너는 폼르데 가르송(Comme des Garçons)이 대표적이다.

④ 분열·붕괴

20세기 후반의 복식에서 나타난 분열·붕괴적 표현은 의도적으로 슬래쉬하고 손상하는 등 명백한 파괴행위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체는 분해적 창조의 한 과정이 되었다. 예를 들면 의복을 만

8) 가재창, 『패션 디자인 발상 트레이닝』, vol.1 (서울 : 정은도서), 1993, p.37.

9) 정은주, “현대복식 디자인의 해체주의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p.29.

10) 이영재, “1990년대 스트리트 패션에 나타난 해체주의 경향”,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p.45.

11) 손미희, 앞의 책, p.57.

들기 전에 멸뽕한 천에 칼집을 내고 휴지처럼 불품없이 구겨놓기도 하고 휴지조각 같은 천으로 의복을 만들어 옷감을 파괴하고 의복의 형태와 구조를 파괴하여 충격효과와 긴장감을 나타내는 경우로서 그 대표적인 예가 펑크룩(punk look)이다.¹²⁾

2-2. 미술의상

(1) 미술의상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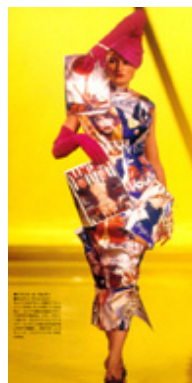
미술의상은 인체를 적극적으로 인식하는 바탕에서 변화 있게 움직이는 의상을 제작하는데 그 기본을 두고 있다. 조형적 표현이긴 하지만 항상 그렇지 않더라도 입을 수 있다는 것에 입각해 옷을 하나의 캔버스로 생각하여 ‘움직이는 조각’ 위에서 어떤 효과를 내느냐는 점에 관심을 갖고 제작하는 것이다. 또한 미술의상은 기성의 디자이너와는 달리 소재의 선택에서 완성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작가 한 사람에 의해 제작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입는다’는 것의 개념을 초월해 보고자 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해체주의적 접근을 통한 미술의상 사례

본 연구에서는 해체주의적 접근을 통한 미술의상을 차연, 의미의 불확정성, 상호텍스트성의 영역으로 분류하여 그 사례를 살펴보았다.



〈그림 12〉 Nina Vivian Huryn, Tree Outfit, 1976



〈그림 13〉 Serediu & Vasiliev, Mode Mode, 2001. 4



〈그림 14〉 Susan Nininger, Duck : Hunting, 1979



〈그림 15〉 Andre Courrèges, 세계 유명 패션디자이너 시리즈, 노라노, 2002

〈그림 12〉는 차연의 흔적으로 가죽에 염색하여 제작하였다. 니나 비비안 허린(Nina Vivian Huryn)의 초기작품으로 아이를 원하지 않는 마을의 전설로 연못에 빠져 죽은 아이들의 유령을 표현하고 있다.

〈그림 13〉은 의미의 불확정성으로 그래피티 기법을 이용하였다.

〈그림 14〉는 소재의 상호텍스트성으로 여러 종류의 단추를 비롯하여 유리구슬, 반짝이는 금속조각, 고리, 체인 등 그 밖의 일용 잡화 등을 장식하여 표현하였다.

〈그림 15〉는 기존 옷의 구조와 형태가 파괴된 기하학적인 디자인이다.

3. 작품 제작

12) 김주영, “현대복식에 나타난 해체주의”,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35~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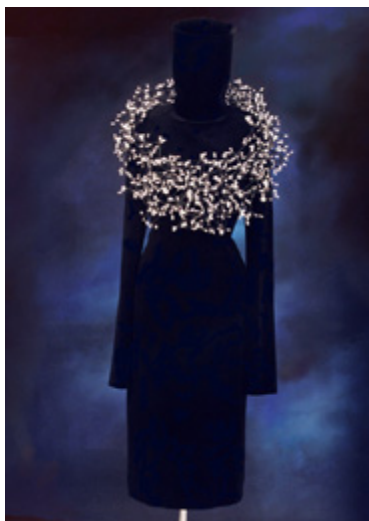
3-1. 제작 의도 및 방법

본 연구는 해체주의 개념과 미술의 전반적인 고찰을 통해 소재의 상호텍스트성을 디자인에 적용하며 조형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미술의상의 해체주의적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3-2. 작품 및 해설



〈작품 1〉



〈작품 2〉



〈작품 3〉



〈작품 4〉



〈작품 5〉



〈작품 6〉



〈작품 7〉

(1) 작품 1

1) 구성 : 원피스 드레스, 베스트

2) 소재 : 벨벳, 면봉, 동선

3) 색상 : 블랙, 레드, 옐로, 그린, 블루

4) 작품해설 : 원피스 드레스와 베스트로 구성되어 있다. 원피스 드레스는 탈구성적 패턴으로 몸에 피트하게 떨어지면서 뒷 라인이 과장되게 긴 것이 특징이다. 원피스 드레스의 색상은 블랙으로 하였고 소재는 벨벳으로 사용하였다. 베스트는 상호텍스트성에 초점을 맞춰 조형감과 입체감을 살려서 불규칙하게 면봉을 와이어로 연결했다. 면봉대는 의상의 칼라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 아크릴 물감을 이용하여 블랙의 색상으로, 숨 부분은 레드, 옐로, 그린, 블루의 직접 염료를 이용하여 염색하였다.

(2) 작품 2

1) 구성 : H라인 원피스

2) 소재 : 벨벳, 면봉, 동선

3) 색상 : 화이트, 블랙

4) 작품해설 : 검정과 화이트를 이용한 컬러에 초점을 맞췄다. 해체주의적 표현방법 중 탈구성적 패턴의 H라인 원피스로 구성되어 있다. 원피스는 벨벳의 소재에 블랙의 색상으로 팔이 길고 목이 높게 과장되게 표현하였다. 상호텍스트성을 이용한 오브제 형태의 하나로 어깨에 걸친 의상의 한 표현으로 장식하였으며 의상과의 조화를 주기 위해 면봉대는 블랙, 숨 부분은 화이트로 아크릴 물감을 이용해서 변화를 주었다. 면봉은 불규칙하게 입체감을 살렸고 서로 연결시키는 선이 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블랙 동선으로 연결하여서 제작하였다.

(3) 작품 3

1) 구성 : 재킷, 스커트, 하이넥 슬리브리스, 머플러

2) 소재 : 벨벳, 면봉, 동선, Seed 비즈, 크리스탈 비즈

3) 색상 : 화이트

4) 작품해설 : 탈구성적인 하이넥 슬리브리스는 벨벳의 소재로 전체적인 의상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면봉을 이용하되 숨 부분만을 잘라서 Seed 비즈, 크리스탈 비즈를 이용하여 움직임 있게 장식하였고 머플러 또한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스커트는 상호텍스트성에 초점을 맞춰 면봉의 소재를 이용하였으며 아크릴 물감을 이용하여 화이트의 컬러가 착색이 잘 되도록 하였다. 재킷은 과장되거나 파괴된 디자인이 아닌 심플한 디자인으로 제작하였고 이미지가 다른 스커트와 코디네이션이 잘 병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스커트는 불규칙하게 화이트 동선으로 연결해서 입체감과 조형성을 살려 제작하였다.

(4) 작품 4

1) 구성 : 하이넥 슬리브리스, 스커트

2) 소재 : 벨벳, 면봉, 동선

3) 색상 : 화이트, 블랙 그라데이션

4) 작품해설 : 탈구성적인 패턴의 슬리브리스에 목은 높게 디자인하였다. 소재는 블랙 벨벳이고 상호텍스트성을 이용한 오브제 형태의 하나로 가슴에 면봉을 장식하였으며 의상과의 조화를 주기 위해 면봉대는 블랙, 숨 부분은 화이트로 아크릴 물감을 이용해서 변화를 주었다. 스커트는 면봉을 이용해서 동선으로 불규칙하게 연결하였다. 색상은 화이트 아크릴 물감을 이용하여 컬러를 칠하였고 블랙 락카를 이용하여 그라데이션 하였다.

(5) 작품 5

1) 구성 : 베스트, 스커트

2) 소재 : 벨벳, 공단, 면봉, 비즈용 실

3) 색상 : 레드, 화이트

4) 작품해설 : 베스트는 해체주의적 표현방법 중 불연속으로 좌우가 일치하지 않는 비 대칭한 것이 특징이다. 베스트의 칼라와 포켓은 공단을 매치시켜 벨벳과의 조화를 이루게 하였으며 타이트스커트에 상호텍스트성의 소재 면봉을 끝부분만 레드로 염색하여 숨 부분만 가위로 잘라냈다. 비즈용 실을 이용해서 스커트에 움직임 있게 달아 면봉을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해 보았다.

(6) 작품 6

1) 구성 : 원피스 드레스, 베스트

2) 소재 : 벨벳, 공단, 면봉, Seed 비즈, 크리스탈 비즈

3) 색상 : 화이트, 블랙

4) 작품해설 : 해체주의적 표현방법중의 하나로서 탈 중심을 응용한 베스트는 중심이 기울어져서 수직·수평선을 탈피한 형태이다. 베스트는 벨벳과 공단을 매치시켜 변화를 주었으며, 해체주의 표현방법 중 분열·붕괴적 표현인 원피스 드레스는 소매 부분을 가위로 의도적으로 잘라내어 옷감을 파괴한 형태의 디자인이다.

(7) 작품 7

1) 구성 : 원피스 드레스, 재킷

2) 소재 : 벨벳, 면봉, 동선

3) 색상 : 블랙, 레드

4) 작품해설 : 탈구성적인 방식으로 원피스 드레스 목 부분을 과장되게 높게 표현하였다. 재킷은 상호텍스트성을 이용한 소재 면봉을 이용하여 의상과의 조화를 주기 위해 색상을 변화시켰다. 검정색 동선을 이용하여 묶은 부분이 표시나지 않게 연결하였으며 입체감과 조형성을 살려 제작했다.

4. 결 론

이론적 배경으로 해체주의 형성배경 및 개념을 분석하고 해체주의 디자인의 특징과 복식에 나타난 해체주의 양식의 특성을 고찰하고 미술의상의 개념과 역사적 배경을 통해 해체주의적 접근을 통한 미술 의상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해체주의 복식의 표현 방법중 상호텍스트성의 디테일을 표현함으로써 창조적인 디자인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의 이론적 연구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해체주의 개념 및 디자인에 대한 고찰과 함께 해체주의 패션의 특성을 연구한 결과 열린 사고를 통한 해체주의 디자인은 기존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디자인 접근 방법의 제시를 통해 디자인의 가치성과 발전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해체주의 복식에서 상호텍스트성은 소재의 자유, 혼합, 대비, 구성의 탈중심, 비대칭 등 기존 관념에서 벗어난 창조적인 디자인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본 작품은 자켓, 원피스, 베스트, 스커트 등에서 새로운 구조의 패턴을 제시함으로써 각 구성이 연결된 독특하고 새로운 구조를 이룸을 알 수 있었다. 기존의 상식에서 벗어난 소재를 통해 창의적 디자인 접근이 가능했고 이를 통해 형태와 구조면에서 새로운 복식 디자인 개발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이 복식 디자인에 있어서 해체주의적 사고는 절대적 가치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현존하고 있는 논리적인 것들에서 탈피하여 다양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러한 패러다임에 더 많은 가능성을 추가하는 연구를 계속한다면 현재의 패션 산업에 작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접수: 2006년 3월 7일)

【참고문헌】

< 단 행 본 >

가재창(1993). 패션 디자인 발상 트레이닝 vol.1. 서울 : 정은도서.

권택영(編)(1991). 포스트모더니즘과 문화. 서울 : 문예출판사.

김민수(1994). 모던디자인 비평. 서울 : 안그라픽스.

김성곤(역)(1998). 탈구조주의의 이해. 서울 : 민음사.

백영자·유효순(1994). 서양복식문화사. 서울 : 경춘사.

블랑쉬 페인(1988). 복식의 역사. 서울 : 도서출판 까치.

송번수 편저(1985). 섬유예술. 서울 : 월간디자인 출판부.

윤호병 외(1992). 후기구조주의. 서울 : 고려원.

이광래(1989). 해체주의란 무엇인가. 서울 : 교보문고.

이의정·김소영(2001). 언더웨어. 서울 : 교학연구사.

조규화(1982). 복식미학. 서울 : 수학사.

Constantine Mildred, Jack Lenor Larsen(1980). The Art Fabric : Mainstream, New York : Van Nostrad Reinhold Co.

Irena R. Makaryk(1993). Encyclopedia of Contemporary Literary Theory Toronto : Univ. of Toronto Press.

Julie Schafler Dale(1986). Art to Wear New York : Abbeville Press Publishers.

M. Collins(1994). Towards Post-Modernism London : British Museum Press.

Peggy Moffit(1991). The Rudi Gernreich Book New York : Rizzoli.

< 논문 >

김주영(1995). 현대 복식에 나타난 해체주의-1980년대부터 1990년대를 중심으로.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손미희(1997). 페미니즘이 현대패션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원선영(2000). 해체주의의 탈구성적 접근을 통한 의상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영재(2000). 1990년대 스트리트 패션에 나타난 해체주의 경향.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정용교(1991). 구성주의와 해체주의 건축의 비교.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은주(1995). 현대복식 디자인의 해체주의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A Study on Art Wear via Deconstruction Approach

Instructor, Dept. of Fashion Design, Dongseo University, **Seo, Yoon-hee**
Associate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Dongseo University, Roh, Youn-sun

This study consists of theoretical background by documentary research and work production by a deconstruction approach, to see the characteristic of deconstruction design and of deconstruction study,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 of deconstruction design and of deconstruction style demonstrated on the costume.

Total 8 pieces of real works with the central reciprocal-text by the way of expression of deconstruction costume style were produced. These consists of one-piece of dress, vest, jacket, and skirt. The main color white and black and sub-color red, yellow, blue, green, etc. vivid color and materials are velvet, satin, cotton tips, and copper wire. Such the design as left-right asymmetric form by matching velvet and satin, de-central form of vest, cloth-breaking by cutting sleeves & formal exaggeration, etc. was applied.

And trying unexpected material cotton tips with copper wire for giving various changes or hanging it with bead thread and other various techniques were applied for the production of deconstruction art wear.

This Study has brought to a conclusion from the above-said studying as follows.

First, as the result of studying the characteristics of deconstruction fashion as well as examining the concept of deconstruction & design, it was confirmed, deconstruction design through open mind greatly contribute to the value and development of design by raising up a different design approach in essence from the conventional one.

Second, in deconstruction costume style, the reciprocal text presents the possibility of a

creative design such as free of material, mixing, and comparison deviating from the conventional ideal.

Third, it is of a new and peculiar composition through raising up jacket, one-piece of dress, vest, and skirt with a new composition of pattern for the production of work.

Fourth, it's possible to approach a creative design via such the material as breaking from the conventional common sense, thereby suggesting the possibility of developing a new costume design in its form and composition.

As the above, it is suggestive that deconstruction thought in costume design should free itself from an absolute value or a fixed idea and new ways.

Therefore, it is considered that ceaseless making studies to add more possibility to this paradigm should render a contribution, to the current fashion industry.

Key Words : deconstruction design, deconstruction costume style